

지금 **Hot한 종목**을 Kodex로 만나는 시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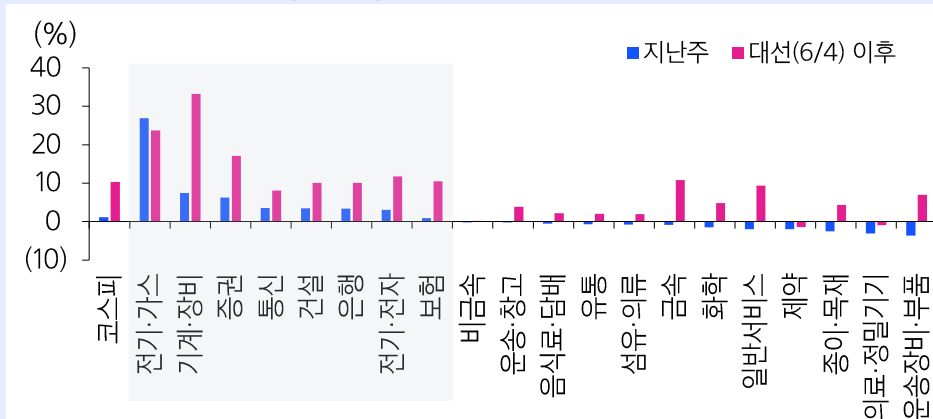
삼성 Kodex ETFNow

Vol 15. 2025.07.02
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

01 | 이번 주 HOT 종목 : 하나금융지주

은행 업종은 2025년 상반기 동안 코스피를 10.4%p 아웃퍼폼 했는데(상반기: 코스피 +28.0%, 은행 +38.4%, 6/30 기준), 상법개정안 통과 기대감으로 지난주에도 코스피를 2.3%p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(코스피 +1.1%, 은행 +3.4%, 6/20~27 기준)[그림 1]. 신정부의 자본시장 관련 정부정책에 힘입어 은행 실적이 개선되고, 주주환원 규모가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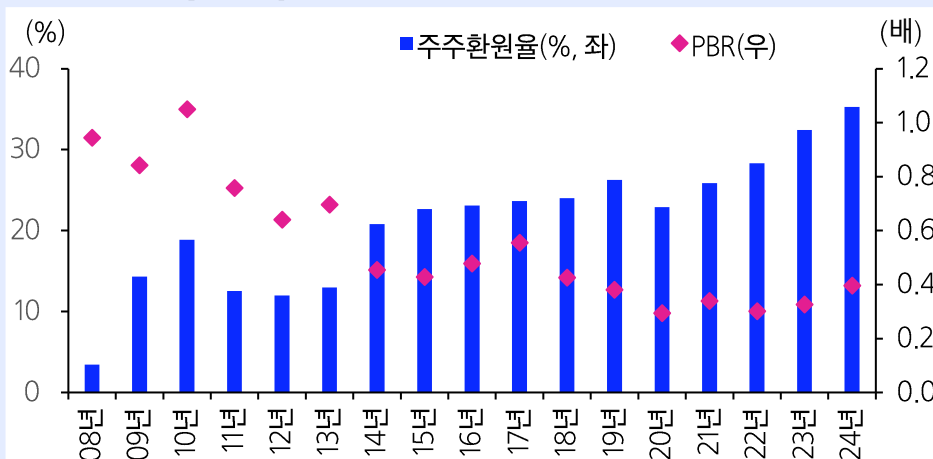
[그림 1] 코스피 업종별 수익률



※ 주: 2025년 6월 27일 기준. ※ 자료: Quantiwise, 삼성자산운용

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'회사'에서 '회사 및 주주'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.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, 자사주 매입은행들의 주주환원율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상당하다[그림 2]. 상법 개정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금융지주를 포함한 지주회사들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다.

[그림 2] 국내 주요 은행: 주주환원율 & PBR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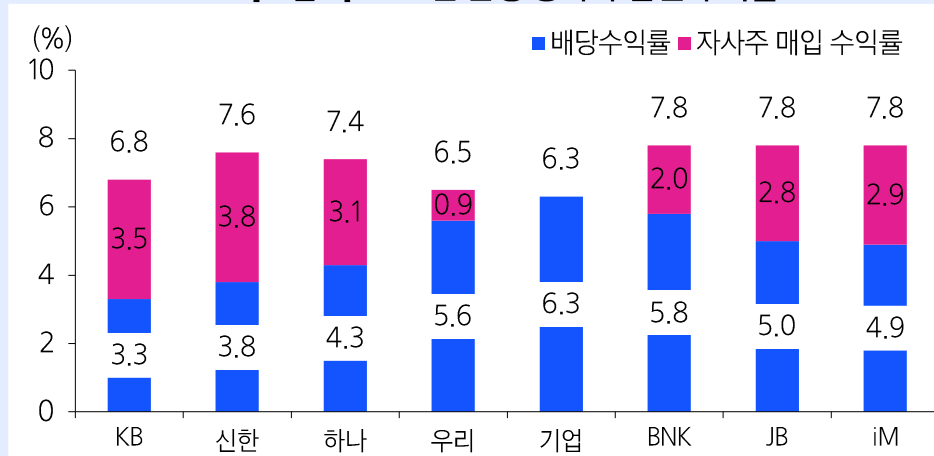


※ 주: 신한지주, KB금융, 하나금융, 우리금융, 기업은행, BNK금융, JB금융, DGB금융. ※ 자료: 키움증권, 삼성자산운용

02 | 주주환원으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기대되는 은행 업종

원/달러 환율이 하락하면, 외화자산의 원화환산액이나 통화파생거래 신용위험 등의 경로로 은행의 자본 비율이 개선된다. 상반기 원화 강세 진행으로(지난해 말 1,471.95원 → 6월 말 1,353.75원, Bloomberg 기준) 하반기 보통자본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. 해당 개선분은 주주환원 확대, 자산 성장 등에 활용된다는 측면에서, **올해 하반기 은행 업종 주주환원액은 전년동기대비 111% 증가할 것으로 평가된다**[그림 3].

[그림 3] 2025년 은행 총 주주환원 수익률



※ 주: 2025년 6월 27일 기준. ※ 자료: 한국투자증권, 삼성자산운용

올해 들어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, **은행 업종의 12개월 후행 PBR은 0.6배에 불과하다**(6/30 기준)[그림 4]. 은행들이 2024년 발표된 기업가치제고계획에 PBR 1.0배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했고, 정부 정책에 힘입어 주주환원 정책이 개선될 여지를 감안하면, **추가 리레이팅이 타당하는 평가다**. 다만,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될 수 있어 변동성 확대가 나타날 수 있는 점도 염두해야 한다.

[그림 4] 코스피 은행 업종 12개월 후행 PBR 추이



※ 자료: Quantiwise, 삼성자산운용

03| 하나금융지주를 가장 많이 담은 Kodex ETF는?



091170

Kodex 은행

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, 국내 은행 대표
10개 종목으로 구성된 월배당 ETF

20.5%

498410

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

금융고배당 TOP 10 기업에 투자하는 동시에
위클리 콜옵션 매도를 통해 매월 분배금 추구

16.9%

315930

Kodex Top5Plus TR

코스피, 코스닥 시총 상위 5개 종목에
배당수익률을 고려한 추가 5개 종목에 투자

5.0%

※ 자료: 2025년 7월 1일 기준, 삼성자산운용

04|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(498410) 알아보기!

✓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(498410) 투자포인트

- ✓ 고배당의 대명사 은행, 보험, 증권 중 증명된 “고배당 TOP10 기업” 엄선 투자
- ✓ 상법개정,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신정부 정책수혜를 등에 업고
호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국내 금융 산업 핵심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
- ✓ 위클리 콜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을 통한 월분배 ETF
‘고배당 금융주투자 + 월배당 + 부분 비과세’ 효과까지. 효율 극대화 포트폴리오



▶ 삼성 Kodex ETF
홈페이지 바로가기

★
탐픽 선정
이유

신정부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을 통해 국내 증시의 구조적 체질 개선을 목표하고 있음. 특히 하나금융지주는 ① 높은 배당성향(25~35%), ② 2027년까지 주주환원율 50% 목표, ③ 배당수익률 4% 이상 등 논의중인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는 금융 지주사. 이에 하나금융지주에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면서도, 최근의 금융 업종의 가파른 상승을 감안하여 커버드콜 구조를 가진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 투자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

★
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(498410) 보유 종목 TOP5

구분	종목명	기업설명	보유비중
1	KB금융 (105560)	배당 확대, 자회사 재편 등 주주친화 정책에 적극 대응중인 국내 최대 금융지주	17.9%
2	하나금융지주 (086790)	자본시장 개방 및 금융규제 완화 흐름에서 수혜가 예상되며, 높은 주주환원에 따른 신정부 수혜가 예상되는 대표 금융지주	16.9%
3	신한지주 (055550)	상법 개정 등 신정부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기조에 부합하는 금융지주사	15.8%
4	우리금융지주 (316140)	비은행 부문 강화와 배당 확대 기조로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있는 지주사	13.6%
5	기업은행 (024110)	정부의 금융 접근성 강화 정책과 직접 연계하는 정책금융기관	12.8%

※ 자료: 2025년 7월 1일 기준, 삼성자산운용 ※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

※ 합성총보수·비용 및 총보수는 기준가격에 따라 매일 일할 계산하여 반영되며 증권거래비용, 기타비용 및 ETF 거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* Kodex 은행 : 합성총보수 연 0.315%, FY2024 기준 증권거래비용 0.0224% 발생, 위험등급: 1등급 (매우 높은 위험)
 *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: 총보수 연 0.390% (운용 0.359%, AP 0.001%, 신탁 0.020%, 사무 0.010%), 위험등급: 1등급 (매우 높은 위험)
 * Kodex TOP5Plus TR: 합성총보수 연 0.1888%, FY2024 기준 증권거래비용 0.0246% 발생, 위험등급: 2등급 (높은 위험)

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와 관련한 저작권은 삼성자산운용에 있으며,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본 자료를 복제 및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
-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으며, 본 자료를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삼성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본 자료에서 소개하는 투자방법은 개별 투자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으로써, 본 자료를 참고한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의 결정에 의하여야 하며, 당사는 투자자의 판단과 결정,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외화로 표시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변동 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본 자료를 삼성자산운용 이외의 자료부터 입수하였을 경우,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- 집합투자증권을 취득 전 투자대상, 보수,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(간이)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-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및 환율변동,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(0~100%)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-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,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.
- 연금 외 수령시 세액공제 받는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(16.5%)가 부과되며,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이익금 분배 방식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,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 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.
-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
이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